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<i>이제는 인천입니다</i> 2025 APEC INCHEON	
배포일자		2024년 5월 17일(금) 총 4매			
담당 부서	안전상황실	담당자	• 안전기획팀장 • 담당자	주현진 ☎440-5731 김은정 ☎440-573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“재난대응 빈틈 없도록” … 인천시, 협력체계 강화
 - 인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,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·전문가 등 모여 -
 - 재난상황관리체계 효율성 및 여름철 재난,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책 등 논의 -

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최고의 심의·조정기구로,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해 인천경찰청장과 교육감, 육군과 해군 부대장, 안전 관련 실·국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,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장과 재난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24명을 포함해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.

시는 지역의 재난안전 이슈 및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·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기획정책, 자연재난, 사회재난분과 등 3개 분과회의를 구성·운영해 오고 있다.

이날 위원회는 3개 분과회의에서 선정한 올해 재난안전 강화 안전에 대해 논의했으며,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이 재난상황 관리체계 효

울성 강화 방안과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및 폭염 예방 대책,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발표하고, 이어서 엄준욱 시 소방본부장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. 이후 참석 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.

먼저, 시는 재난상황 관제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능형 폐쇄회로(CC)TV 설치를 의무화한다. 현재 폐쇄회로(CC)TV 관제는 육안으로만 할 수 있지만 ▲2027년까지는 전면 지능형 폐쇄회로(CC)TV 관제체제로 전환 ▲현재 18개 기관인 폐쇄회로(CC)TV 영상정보 공유를 2030년까지 30개 기관으로 확대, ▲올해 폐쇄회로(CC)TV 설치 확대(올해 695대) 및 저화질 폐쇄회로(CC)TV 전면 교체(1,047대), ▲빅데이터 기반 CCTV 안전환경 개선 실증 시범사업 등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상황 관제체계를 확립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.

두 번째로, 기후위기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도 강화한다. ▲폭우·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우려지역을 올해 55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 ▲지하차도별로 침수위험도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 ▲저지대, 반지하 등 상급 침수위험 주택에는 물막이판, 역류방지밸브, 이동식 차수판 등 설치 지원 ▲저지대 침수피해지역인 구월지구 등 5개 지구에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도 계속해 기반시설(인프라)를 강화한다. 또 다가올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(1,300여 개소), 쿨링포그, 횡단보도 그늘막 등을 운영하고, 취약계층을 위한 쿨링쉼터(안심숙소), 냉방물품지원 등도 지원한다.

세 번째,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대책으로는 ▲시민 참여 재난대비 훈련·교육 강화, 매뉴얼 보완 ▲고령층과 장애인 등 피난안전구역 설치 ▲법 개정을 통한 민간 건축물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▲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 확대 ▲고층 건물 방화문 닫기 홍보·실천 확대 ▲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내실화 ▲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강화 ▲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소방훈련 ▲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및 구급차 등 소방차량과 전기차 이동식수조 등 장비 보강 ▲고성능-CAFS 탑재 소방차량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특히,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개발 지역 중심으로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제약과 소방장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물 높이의 물리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규 장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장비 보강,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.

유정복 시장은 “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, 대형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원천”이라며, “과잉 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각오로 우리 시가 초일류 안전 도시, 제1 행복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<https://tv.incheon.go.kr>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2024년 제1회 인천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계획

□ 법적 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(지역위원회)
- 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6·7조(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)

□ 개최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 5. 17.(금) 14:00~15:10/ 市 재난안전상황실(IDC 6층)
- (참석대상)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38명, 외부 전문가 3명
 - (市) 시장(위원장), 행정부시장, 시민안전본부장 등 실·국·본부장 8명
 - (외부) 인천교육감, 인천경찰청장, 육군 507여단장, 인천해역방어사령관, 국립인천검역소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장 14명, 위촉위원 10명
 - (전문가)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, 포스코와이드 그룹장, 인천대 교수 등 3명
- (주요내용) 안전관리위원회 분과 운영보고, 제1회 안전보고 및 토론 등

□ 보고 안건

- 재난상황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방안
-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및 폭염 예방 대책
- 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대책(재난관리, 소방안전)